

# 1950년대 신문소설의 한 양상

## — 정비석의 「자유부인」론 —

김 동 윤\*

### 차 례

- I. 머리말
- II. 1950년대 신문소설의 배경
- III. 「자유부인」의 신문소설적 특징
  - 1. 시의성
  - 2. 화제걸치기 기법
  - 3. 독자의 참여
- IV. 「자유부인」의 통속성과 문학적성
- V. 맺음말

### I. 머리말

지금까지의 1950년대 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 대상이 대체로 장편소설보다는 단편소설에 집중돼 왔으며, 그나마 일부 논의된 장편도 수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50년대 장편소설의 대부분이 신문에 연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문연재물이라는 이유로 그것들을 대부분 통속소설로 치부해 버림에 따라 본격문학(고급문학 혹은 순문학)만을 주된 논의

---

\* 국어국문학과 강사

의 대상으로 삼아온 우리 문학연구자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 인해 50년대 문학에서 장편소설은 거의 공백상태인 것으로 비춰지고 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현상을 더이상 간과하는 것은 곤란하다. 연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50년대 신문소설들이 과연 통속소설로만 치부해버릴 작품들인가, 그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작품분석과 검증절차를 거쳐 통속소설로 판단하고 있는가, 설사 통속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당대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게 아닌가, 통속성의 미학이 성립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점 등을 이제 숙고해 볼 때가 되었다.

50년대가 전작 장편 출간이 어려웠던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신문소설을 소설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어야 마땅하다. 그 이전의 문학사에서는 신문소설이 상당히 비중있게 취급되면서도 유독 50년대 문학만 그렇지 않은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문학에서 30년대의 장편소설들도 거의 신문소설이었지만, 그때의 신문소설들은 매우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음에 비해 50년대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 예컨대 염상섭의 「삼대」, 심훈의 「상록수」, 이기영의 「고향」 등이 다 30년대 신문소설인데, 그 작품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문소설이라는 형식 자체에 무슨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신문소설은 부정적 측면과 함께 긍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는 것이기에, 신문에 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다.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도 50년대는 신문소설이 상당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예지들은 지면이 한정되기도 하거니와 독자층도 상대적으로 딱 적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의 진행으로 텔레비전이 보급되는 등 대중매체가 급격히 늘어남과 아울러 출판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소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에 비춰볼 때 50년대의 신문소설은 문학사적 측면에서 점검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정비석(1911~1991)의 「자유부인(自由夫人)」은 54년 1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신문』에 215회에 걸쳐 연재되어 신문소설 초유의 선풍적 인기를 모은 작품이다.<sup>1)</sup> 그러나 아직까지 이 소설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도 않았으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편적인 논의는 더러 있었지만, 문학사나 소설사의 측면에서는 정한숙의 『현대한국문학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2)</sup>

그것은 다른 대부분의 50년대 신문소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이 통속소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자유부인」을 독자의 기호에 영합한 통속소설이라고만 치부하고 마는 것은 지나치게 작품을 폄하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신문에 연재된 것이기에 통속소설이며, 그래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자유부인」을 소설사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런 태도는 분명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문소설로서의 성격과 통속성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자유부인」의 위상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는 50년대 신문소설의 성격을 구명하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 소설

1) 1985년 9월에 쓴 다음과 같은 정비석의 슬회를 보면 「자유부인」의 인기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자유부인」을 연재하는 동안에는 『서울신문』의 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다가 연재가 종결됨과 동시에 5만2천 부 이상이 일시에 격감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우리나라 신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자유부인」은 책으로 출간되었을 때에도 놀라운 정도로 많이 팔렸지만, 영화로도 세 번씩이나 제작되어 그때마다 번번이 대성황을 이루었다.” [정비석, 「작가의 말」, 『자유부인』(고려원, 1996), 8쪽.]

2) 정한숙은 「자유부인」이 단순한 애정소설이 아니라, “해방과 함께 물려온 서구자유주의 물결과 그로 인해 조성된 사치와 허영의 풍속도를 묘파한 세대풍속소설이다. 시대변천에 따른 윤리관의 붕괴, 세대인심의 변화, 이것은 우리 新文學의 양상이기도 하다.” [『현대한국문학사』(고려대학교출판부, 1982), 173쪽]고 밝혔는데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관점이다. 정한숙은 『현대한국문학사』뿐만 아니라, 『현대한국소설론』(고려대학교출판부, 1977)에서도 「자유부인」에 대해 비교적 비중있게 살피고 있다.

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II. 1950년대 신문소설의 배경

50년대는 월남민과 이농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산업화에 앞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고 전후의 인구증가율도 높았다. 특히 해방 직후 어떤 정책보다도 선행해서 이루어진 의무교육제도의 보급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인구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식자층의 증대를 가져왔다. 문자 미디어는 한국사회에선 전통적으로 높은 위신을 누리고 있었다. 더욱이 구한말의 개화언론에서 비롯하여 일제하의 민족언론을 거쳐 해방후의 반공언론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신문의 공익기능은 독자들로부터 커다란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었다. 1950년대의 언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문의 연대(年代)'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sup>3)</sup> 이처럼 높은 교육열에 따른 식자층의 증대로 신문의 독자가 늘었다는 점은 신문소설의 독자가 그만큼 많아졌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대 신문소설의 인기가 대단한 것이었음은 김영덕의 조사<sup>4)</sup>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김영덕이 이화여대 2백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1957년 6월 14일 현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조사시점을 기준해서 6개월 동안에 신문소설을 읽은 학생은 문과 이과를 합쳐 95%에 달하고, 단행본 소설 독자는 문과계 학생이 64%, 이과계 학생이 약 40%였다. 1월 이후 단행본 소설책을 사 본 학생은 문과·이과를 합쳐 불과 10%에 지나지 않았다. 대개는 그 전에 출판된 것을 읽거나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것이었다.

둘째, 6월 현재 신문소설을 읽고 있는 독자(문·이과 합쳐)는 65%였고,

3) 최정호 외 2인, 『매스미디어와 사회』(나남, 1990), 138~139쪽.

4) 김영덕, 「신문소설과 우리」, 『자유문학』 1957년 7월호, 140~148쪽.

단행본 독자는 문과계 학생이 56%가 넘으며, 이과계학생은 10%에도 미달했다. 6월 중에 단행본 소설책을 사 본 학생은 문·이과 학생 합쳐서 5%정도였다.

셋째, 학생들을 통해서 그들 가정에서 신문소설을 읽는 독자를 간접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6개월 동안에 90%에 이르렀다.

위의 결과를 보면, 당시 신문소설 독자가 단행본 독자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지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신문소설을 읽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처럼 신문소설 독자가 많은 것은 당시로서는 '생활의 오락'이 적은 탓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파매체의 보급이 거의 안 된 당시 실정에서, 그리고 출판계가 부진하고 구매력이 빈곤한 실정에서 보면 당시에 생활 오락의 수단으로 신문소설이 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던 것이다. 신문의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최근의 신문연재소설의 실상<sup>5)</sup>에 비한다면 50년대의 신문연재소설의 위상이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태용은 1950년대 신문소설의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의 신문소설 배경적 요인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신문소설이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휴전 전후부터다. 이 시기에도 그러나 鄭飛石의 「自由夫人」을 제외하고 나면 대개는 신문體裁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自由夫人」은 말하자면 신문소설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인식시켜 준 중요한 역할을 했다.

五四년에 들어 신문이 倍大版 四面으로 되면서부터 연재소설은 댄 수 없는 것이 되었고, 五八년에 들어 朝夕刊制가 실시되자 그 수요량은 부쩍 늘어

5)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50년대의 신문소설이 얼마나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1997년 3월말 (주)리쿠르트가 대학 4년생 1천 4백9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신문구독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문의 고정난을 보는 우선 순위는 사설이 37.8%로 가장 먼저였고, 칼럼 22.9%, 만화 18.3%, TV프로그램 5.6%, 증권시세 2.7%, 날씨 1.3%, 연재소설 0.7%의 차례였다. (「리쿠르트 Times」 120호, 1997년 4월 7일자.)

서, 이제까지 藝術小說 부분에 머물던 사람들까지도 신문소설에 대량 진출해 갔다.

그러나 休戰 전후로부터 이제까지 六~七년 동안 신문소설로서 많은 독자를 이끌었고 또 물의를 일으켜 준 것은 전기한 「自由夫人」과 金來成의 「失樂園의 별」 정도다. 또 역사물로서 현대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읽혀진 것은, 朴鍾和의 「壬辰倭亂」이며, 이것은 量的으로도 단연 다른 것을 壓倒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金八峰의 「統一天下」도 많은 독자를 끈 장편 역사물이었다.

역사소설을 제외한 전기한 두 개의 작품 「自由夫人」과 「失樂園의 별」은 어떤 사상성의 깊이를 가진 것은 아니나, 6·25전란 후의 우리 사회를 잘 반영한 것으로서 이 六~七년간의 대표적인 신문소설로서 취급할만한 것들이다.<sup>6)</sup>

위의 인용에서 보면 당시 신문의 지면이 급격히 증가한 점이 50년대에 신문소설이 독자층을 넓힐 수 있었던 주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부인」의 영향력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 「자유부인」이 「신문소설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인식시켜」 주었으며 「6·25전란 후의 우리 사회를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자유부인」을 통해 50년대 신문소설의 성격과 50년대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면이 급증한 상황에서 신문사측에서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재소설을 이용한 것은 부정적인 면을 초래기도 했다. 각 신문들마다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그런대로 독자에게 그날그날 자기 신문에 대한 흥미를 주기 위해 소설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신문 기업주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는 만큼, 작가측에서도 신문연재소설을 대할 때에는 암묵적으로 그 요구조건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sup>7)</sup> 신문사측은 독자가 흥미를 느낄만한 재미있는 소설을

6) 정태용, 「신문소설의 새로운 영역」, 『사상계』 1960년 4월호 268쪽.

7) 정비석, 「신문소설론」, 『소설작법』(정음사, 1987), 178~179쪽.

작가에게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상업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설은 연재 도중에도 중단되는 일까지도 있었다. 신문사측의 상업성 추구가 노골화되고 작가들이 그에 추종한 결과 신문연재소설은 곧 흥미만을 추구하는 통속소설이라는 관념이 뿌리를 박게 되었다. 이는 50년대의 신문소설들이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의무교육의 실시로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 지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 등은 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신문소설이 곧 통속소설이라는 부정적 관념이 더 깊이 심어진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 Ⅲ. 「자유부인」의 신문소설적 특징

신문소설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민병덕<sup>8)</sup>, 임성래<sup>9)</sup> 등에 의해 이루어

- 
- 8) 민병덕은 「한국근대신문소설연구」(성균관대 박사논문, 1987)에서 신문소설의 성격과 구성요소에서의 특성을 밝힌 바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신문소설의 성격은 ① 1회의 매수에 제한이 있다는 것, ② 좁은 지면의 마지막에 날마다 서스펜스와 고비를 만들어 이튿날에 연결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③ 온갖 계층을 독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 ④ 그러기 위해서 최대공약수적인 문학의식에 맞는 내용으로 한다는 것, ⑤ 심리묘사보다도 대화장면을 많게 하고 명쾌한 즐거리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민병덕은 또한 ① 독자의 호기심을 끄는 문체가 주제로 다루어진다, ② 구성은 1회 일정 분량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회분은 소설 전체의 일관된 이야기의 한 부분이어야 하고, 전일분 이야기의 계속이어야 하며, 전일분 이야기의 복선이어야 하고 한회분만으로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 ③ 신문연재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체로 종교적이고 배금주의적이며 자기개량적이고 모험적이며 인도주의적이다, ④ 변화있고 면밀한 배경 묘사와 아울러 알기 쉽고 쉬운 용어로 서정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표현이 요구되기도 한다 등을 신문소설의 구성요소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 9) 임성래는 「신문소설의 입장에서 본 「혈의 누」」[대중문학연구회,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국학자료원, 1996), 7~28쪽]라는 글에서 신문소설의 특징을

진 바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① 시의성(時宜性), ② 화제 걸치기 기법, ③ 독자 참여, ④ 쉬운 표현과 명확한 줄거리 전개, ⑤ 완성된 이미지와 상투적 표현의 사용 등을 신문소설의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쉬운 표현과 명확한 줄거리 전개는 신문소설의 특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작품을 고찰하는 데 유용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며, 완성된 이미지와 상투적 표현을 사용하는 점은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것이 작품에서 딱히 꼬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중에서 특히 시의성, 화제걸치기 기법, 독자 참여 등에 주목하여 다른 소설과 구분되는 신문소설의 특징적인 모습을 찾으려 한다.

첫째, '시의성'은 독자들이 당대 시점에서 관심있는 문제를 주제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즉 당대 독자들의 현재적 관심사를 소설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저널리즘이라는 신문의 본질상 신문연재소설 역시 다른 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소설에 비해 시사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의성이야말로 신문소설의 사회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신문소설은 날마다 연재되기 때문에 독자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가 재미있을 만한 대목에서 절단하여 다음 회에 걸쳐 이어지도록 하는 기교인 '화제걸치기 기법'을 사용한다. 화제걸치기 기법은 흔히 '단절기법' 또는 '다음호에 계속 원칙'이라고 부른다.<sup>10)</sup>

---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① 시의성을 중시하여 당대 독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를 소설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② 일정한 주기로 연재됨에 따라 작가는 빨리 써야 하므로 이미 완성된 이미지와 상투적 표현을 자주 활용한다. ③ 상황의 묘사보다는 줄거리 전개에 더욱 신경을 쓴다. ④ 단절기법('다음호에 계속' 원칙)을 활용하여 구독자의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⑤ 작가는 조건·석간, 신문 종류, 논조, 구독자 계층, 지역, 나이 등 신문 구독자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건에 맞춰 작품을 쓰게 된다. ⑥ 독자의 참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다.

10) 임성래는 단절기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는 『조선후기 대중소설』(태학



하지만 단절기법이라는 용어는 이야기를 적절한 시점에서 끊는다는 의미로는 적합하지만 흥미있는 장치로 다음에 이어진다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다음호에 계속 원칙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시점에서 이야기를 끊는다는 의미가 덜 드러나는 용어로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좀더 의미의 구체성을 띠도록 화제걸치기 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셋째, '독자 참여'가 두드러진 점 역시 신문소설의 한 특성인데, 그것은 작가가 독자의 요구와 제안, 비판과 격려 등을 접함으로써 작품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창작 형태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독자가 소설의 흐름에 적잖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독자를 의식하고 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면에서 전작장편이나 문예지 연재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기리에 연재되는 소설일수록 독자 참여 경향은 두드러지게 된다. 이는 결국 독자의 개입에 따른 독자와의 타협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신문소설 작품을 검토할 때는 이러한 신문소설로서의 특성을 감안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이라는 매체가 지니는 특수한 성격이 소설의 내용과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문소설로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작품의 의미와 성격을 좀더 분명히 구명하는 데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자유부인」은 모두 20개의 소재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재목별로 그 개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안은 신문 연재 횟수).

1. 花交會(1~11회): 오선영은 화교회 가는 길에 옆집 대학생 신춘호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 화교회에 참석하여 회원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

사, 1996)에서 이러한 기법이 우리 나라에선 조선후기 '전기수'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유충열전」, 「이대봉전」 등 방각본 대중소설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오선영은 집안에만 박혀 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2. 그리운 世界(12~21회): 오빠 오병헌 집에 들렀다가 한태석 아내(이월선)의 화장품점 경영을 맡기로 하고 나오던 길에 오선영은 조카 오명옥과 신춘호가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을 본다. 신춘호와 함께 귀가하던 오선영은 그에게 댄스를 배우기로 한다.

3. 平和革命(22~32회): 장태연은 한글철차법 강습을 구실로 박은미를 만날 계기를 만들게 되고, 오선영은 신춘호의 방에서 댄스를 배우기 시작한다.

3. 職業戰線(33~43회): 오선영은 파리양행에 근무하게 된다. 손님이었던 백광진의 사업제의를 받게되는가 하면 한태석을 만나게 되는 선영은 한 사장의 말에 따라 양장을 살 궁리를 한다.

4. 幻想交響樂(44~54회): 장태연은 박은미를 만나 영화를 함께 보고 식사를 한 후 다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오병헌을 만난다. 오병헌은 선거구인 고향에 신설하는 중학교 교장을 맡아달라고 제의하지만 장태연은 거절한다. 오선영은 신춘호의 방에서 춤추다가 포옹과 키스까지 하기에 이른다.

5. 魚心·水心(55~65회): 남편이 바람난 최윤주는 이혼한다. 오선영은 백광진과 만나지 못해 하던 중 한태수를 만나 화교회 댄스 파트너가 돼 달라고 청한다.

6. 神聖可侵(66~75회): 오선영은 자기집 안방으로 신춘호를 불러다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는데, 결국 장태연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

7. 時代風潮(76~85회): 오선영이 신춘호와 해군장교구락부에서 춤추던 중 오명옥을 만난다. 장태연은 박은미로부터 원효삼의 점수를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지만 거절한다.

8. 領域侵犯(86~95회): 이월선의 감시를 받는 가운데 오선영은 백광진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다. 그녀는 보증수표를 받고 남편 몰래 원효삼의 점수를 높여주면서 그 수표로 양장을 사기로 결심한다.

9. 人生勝負(96~106회): 백광진과 관계를 맺던 최윤주는 그의 사기에

넘어간다. 오선영은 돈(선거비용)을 빌려달라는 울케의 요구를 거절하고 한태석과 식사하러 가던 도중 이월선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앙심을 품는다.

10. 心理波紋(107~117회): 장태연은 강습 후 박은미를 바래다 주면서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신춘호 방에서 춤을 배우던 오선영은 춘호의 피임에 넘어가 몸을 허락하려던 찰나 때맞춰 찾아온 아이들 때문에 빠져나온다.

11. 虛榮無限(118~127회): 오선영은 백광진에게 속아 가짜수표를 거슬러준다. 그녀는 나이롱 한복을 해입고 최윤주가 주도하는 계모임에서 대낮에 술 마시며 즐긴다.

12. 混沌天地(128~138회): 장태연은 원효삼의 성적이 오른 것을 자신의 실수로 안다. 학교로 찾아와 선거구 유지의 자식을 부정입학시켜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당선만 생각하는 오병헌의 태도를 못마땅해하던 장태연은 아내의 사생활에 대한 익명의 편지를 받고 고민한다. 그는 오선영이 양복을 맞춰 입은 걸 보고 언쟁을 벌인다.

13. 有名無實(139~150회): 오선영은 백광진을 못 만나 하던 중 오명옥과 함께 미국으로 간다는 신춘호와 점심을 같이하고 밤에 또 만나기로 한다. 그녀는 한태석에게 돈을 빌리기로 한 후, 신춘호를 기다리던 중 남편을 만나 귀가한다.

14. 遠浦歸帆(151~161회): 장태연은 강습 수료식이 끝나 박은미와 귀가하던 중 그녀가 원효삼과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념에 빠졌다가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며 자신을 반성한다.

15. 收支不計(162~171회): 오선영은 신춘호에게 실연당하는 한편 백광진도 최윤주와 주말여행 갔음을 알게 되자 견잡을 수 없는 패배감에 빠진다.

16. 百尺竿頭(172~181회): 장태연은 자기도 댄스를 배우겠다고 오선영에게 달려들지만, 오선영은 남편을 무시하고 댄스파티에 한태석과 함께 가기로 결심을 굳힌다.

17. 更進一步(182~193회): 오선영은 한태석과 댄스파티에서 춤추고 나와 여관에 들어갔는데, 결정적인 순간 이월선이 나타나 정신없이 도망 나온다.

18. 四面楚歌(194~203회): 통금에 걸려 파출소에서 밤을 보내고 친정에 들른 다음, 귀가한 오선영은 장태연에게 혼나 뒤흔다.

19. 溫故知新(204~215회): 파리양행 점원인 미스윤 집에 머물며 뉘우치던 오선영은 낙태 후유증으로 입원한 최윤주를 보며 괴로워 한다. 그녀는 국회 공청회장에서 장태연의 자랑스런 모습을 방청한다. 공청회 후 오선영을 만난 장태연은 그녀를 용서하고 함께 귀가하기에 이른다.

이제 위에서 소개한 줄거리를 중심으로 「자유부인」이 어떤 점에서 신문소설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시의성

정비석은 신문소설에서 시의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작가였다. 「신문소설론」에서 그는 시의성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문이란 말할 것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국내외에서 그날 그날 일어나는 새 소식을 최단 시간에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절대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기사는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첨단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 그러한 지면에 연재하는 소설인 만큼 신문 소설(역사소설은 별문제지만)은 주제를 택하는 데 있어서도 현실적이며, 첨단적일 필요가 있다. 신문기사는 첨단적·현실적인데 소설내용만은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내용을 취급하면 여간 능한 솜씨로 엮어 나가기 전에는 독자의 감정이나 감각과 동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이다.<sup>11)</sup>

11) 정비석, 「신문소설론」, 앞의 책, 180쪽.

신문의 기사와 같이 신문소설도 현실적이고 첨단적인 내용을 다뤄야 독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작품이 연재되던 1954년은 가정주부들의 댄스 바람, 계(契)바람, 치맛바람 등이 한창 말썽을 빚고 성도덕의 퇴폐와 이혼 문제가 부쩍 늘어나는 등 이른바 전후 풍조가 휩쓸고 있던 때였다. 박인수라는 건달이 댄스홀을 무대로 혼인을 빙자하여 춤바람이 난 여대생과 직업 여성을 70여명이나 농락한 ‘박인수 사건’이 있었던 것도 이때의 일이다. 아울러 미국문화가 거침없이 밀려들어왔으며, 지도층의 부패도 심각한 정도로 이르렀다.

정비석도 이런 점을 작품에 반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곧 독자들의 큰 관심사이기도 했다.

그 당시 「자유부인」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작의(作意)는,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가정적인 혼란상과 사회적인 부패상을 소설로 그려봄으로써, 참된 민주주의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데 있었다.<sup>12)</sup>

비록 작가의 말의 아니더라도 「자유부인」을 통독해 보면 이 소설을 단순한 애정소설로만 파악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해방과 함께 물려온 서구 자유주의의 물결과 그로 인해 조성된 사치와 허영의 풍속도를 묘파한 세대풍속소설로 시대변천에 따른 윤리관의 붕괴, 세대인심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런 세대에서 작가가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자유부인」에 나타난 댄스바람의 양상을 살펴보자.

「민주주의도 좋지만, 나는 우리 집 양반이 외국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파

12) 정비석, 「작가의 말」, 앞의 책, 8쪽.

티에 같이 나가자는 데는 질색이야, 호호호……. 외국 손님을 초대할 경우에는 주인측에서도 부부동반이 예의인 줄은 알지만, 춤도 능란하지 못하면서 나같이 늙은 것이 그런 데에 나가 뭘 하니, 글썄!

외교관의 부인은 외교 예식에도 풍부한 지식이 있어 보인다.

「그게 얼마나 민주주의적이유! 참 언넌, 탕고 왈츠도 잘 추신다지?」

화제는 어느덧 댄스로 비약하였다.

「아이참! 잘 출 게 어디 있어! 그저 흥태나 내는 정도지. 일전에 미국에서 경제사절단이 왔을 때 환영파티에도 갔었는데, 단장 되는 분이 나더러 춤을 추자는 게 아냐, 글썄. 어떻게나 부끄럽던지. 호호호.」(9회)

화교회에서 부인들끼리 나누는 대화다. 외교관 부인은 파티에서 춤을 추는 것을 걸으론 부끄럽게 느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선영은 화교회원들의 이런 대화에 자극을 받고 신춘호를 만나 그에게 댄스를 배우게 된다. 처음에는 신춘호의 방에 가서 배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신춘호를 자기 집 안방으로 끌어들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해군장교구락부(LCI)라는 공개된 장소까지 춤추러 나닌다.

오선영 여사가 신춘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열 시 아이에 도착한 것은 일곱시 십분경이었다. 오 여사는 문 안에 썩 들어서자, 너무나 화려한 눈앞의 광경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도록 황홀하게 놀랐다. 저만치 악대(樂臺) 위에서 파도처럼 웅장한 음악이 유랑하게 흘러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삼십평이 훨씬 넘는 넓은 홀에서 호화찬란하게 차린 칠팔십명의 남녀들이 제각기 짝을 지어 멋들어진 스텝을 밟고 돌아가는 것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흥겹기 짝이 없었다. 천장에서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오색 전등은 문자 그대로 불야성(不夜城)을 이루었고, 바깥은 상당히 추운 날씨건만, 홀안의 공기는 훈훈하고도 향기로웠다.(78회)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50년대 춤바람의 정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곱시가 넘는 시간, 30평이 훨씬 넘는 홀, 천장에서 오색 전등이 휘황

찬란하게 비추는 가운데 칠팔십명의 남녀들이 제각기 짝지어 춤을 추는 모습, 이것이 50년대의 댄스바람의 단면이었던 것이다. 오선영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한태석을 애인으로 삼아 수정궁에서 열리는 댄스파티에 참석한다. 다음은 그 댄스파티장에 막 도착했을 때의 장면이다.

홀 안의 광경은 눈이 부시도록 호화찬란하였다. 넓디넓은 홀을 휘황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샹들리에 밑에서는, 60여명의 남녀들이 아름다운 고기뻐처럼 춤을 추며 돌아가고 있었다. 화려한 인어떼였다.

마룻바닥에 허영게 깔려 있는 봉산가루를 아낌없이 밟고 돌아가는 스텝과 스텝……. 음악이 고비를 넘길 때마다 멋들어지게 넘실거리는 육체와 육체! 향기로운 음악과 향기로운 행복에 황홀하게 도취되어 돌아가는 얼굴과 얼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돌아가는 것은 정녕 사람이런만, 서로서로 얼싸안은 남녀들이 하도 리드미컬하게 넘실거리기 때문에 마치 방안 전체가 회전목마처럼 돌아가는 듯이 보였다. 음악이 돌아가고, 술병이 돌아가고, 테이블이 돌아가고……. 모두가 회전목마를 타고 비잉빙 돌아가는 듯이 보였다.

여기에서만은 인간 생활의 모든 시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오직 쾌락과 행복만이 무르녹고 있을 뿐이었다. 인생의 쾌락과 정열의 발산과 청춘의 난무가 있을 뿐이었다. 관능적인 채취에 정신이 현혹해 오도록 대담 무쌍한 애욕의 분방이기도 하였다.

「어머나……, 어찌면..」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던 오선영 여사는 한태석의 팔을 꼭 붙잡으며 무심중에 감탄성을 발하였다.(187회)

오선영의 눈에 비친 파티장의 모습이다. 오선영에게는 춤추는 남녀들이 인어떼로 보이는가 하면 파티장 전체가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듯하다. ‘눈이 부시도록’, ‘휘황찬란하게’, ‘화려한’, ‘멋들어지게 넘실거리는’, ‘향기로운’, ‘황홀하게’ 등의 표현에서도 보듯이 그야말로 환상적인 세계였던 것이다. 이런 환상적인 세계에 감탄하는 오선영은 결국 쾌락과 애욕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한태석과 여관까지 가게 만드는 요

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50년대 댄스바람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미국문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정비석은 「자유부인」에서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던 것이다.

50년대 부유층 부인들은 댄스바람뿐만 아니라 계바람을 몰고 다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유부인」에 나타난 계바람의 예를 보기로 하자.

「뭐? 칠백만원짜리 집을 샀어? 칠백만원이라면 정말 궁궐같잖구나? X 청장쯤 되면 아마 수입이 무척 좋은가 보지?」

「그야 물론이지. 남편도 수완이 좋아서 수입이 많지만,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계(契)를 많이 물어서 그 수입만도 상당하단다.」

「참, 말이 났으니 말이지, 요새 여자들은 묘여 앉기만 하면 계, 계 하고 계 이야기뿐인데 계라는 것이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너는 시골뜨기처럼 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니?」

최운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입을 딱 벌린다. 오선영 여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97회)

계를 해서 얻은수입을 남편의 수입에 보태서 궁궐같은 집을 사는 고관의 부인이야기는 당시의 계바람의 위력을 짐작하게 해 준다. 계가 유행이라는 말만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오선영은 시골뜨기 취급을 받고 있다. 서광운<sup>13)</sup>에 따르면 55년 1월 ‘광주시 계소동’이 터졌는데, 이는 계가 핑크나자 가정주부 17명이 자살했다는 소문이 나 돌면서 마침내 국회조사단까지 파견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계바람이 50년대 사회에서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음을 말해준다.

50년대 사회를 말하면서 우리는 특히 미국문화의 수입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방직후와 50년대는 미국문화가 본격적으로

13) 서광운, 『신문소설사』(해돋이, 1993), 311쪽.



유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해방이전에는 일본문화의 영향이 컸음이 물론이지만, 해방직후부터 한일수교 이전까지는 일본문화보다는 미국문화의 영향이 더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자유부인」은 특히 50년대의 춤바람을 적극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미국문화에 대한 동경과 함께 향락적 삶의 태도가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였던 것이다. 미국의 소비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미국지향적이고 계층상승적인 사고와 향락적 생활태도가 만들어낸 것이 「자유부인」이라는 것이다.

「최고급품으로 주시오! 물론 외국품이겠지요?」

「네! 「맥스파다」 상품이라고 미국제품입니다.」(35회)

「나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미세스 오께서 적당히 선택해 주십시오.」

(……)

「향수와 코티 분만은 불란서 제품이고, 그 밖의 것은 죄다 미국 제품입니다.」(37회)

「이거, 미제(美製) 와이샤릅니까?」

신춘호는 여전히 상품에 시선을 부은채 잠꼬대처럼 물었다.

「미제야...왜, 와이샤릅가 필요한 거야?」(143회)

위의 인용문들은 모두 ‘파리양행’이라는 화장품점을 겸한 양품점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이다. 화장품이든 옷이든 미국제품이라는 점이 구매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22회 연재분에서는 가정주부들이 미제 화장품을 매우 선호하는 장면도 나온다. 미군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직접 구입해 온 것을 쓴다는 것이다.

신춘호와 오명옥이 영문과 학생이라는 점, 그들이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유학간다는 점 등도 미국문화의 유입과 관련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50년대의 제반 사회현상이 미국지향적이었으며, 그러한 세대가 「자유부

인」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지도층의 부패상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고급관료도 정치인도 사업가도 교수도 이 소설에서는 거의 부패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화교회(화교회는 고위층을 남편으로 둔 부인들의 모임이다.) 모임에서 식사 도중 나누는 대화들(연재 7회분부터 10회분까지)을 보면 당시 지도층의 부패상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중 일부분을 보자.

「보옥이도 남편이 취직을 했으니 이제 편찮을 거야. 언젠가는 남편이 실업중이니 우리 주인 양반더러 취직을 알선해달라고 하면서, 나한테 은으로 만든 반상기 한 벌을 가져왔겠지 글썸! 참, 기가 막혀서! 선후배, 동창생들끼리 취직을 부탁하는데 글썸!(……)」

(……)

「그래, 취직은 어떻게 됐니?」

「동창생의 부탁인 걸 어떻게 해! X 영단 과장으로 취직시켰지.」

「내무부 장관 세력이 상당하시구려! 호호호.」(8회)

은으로 만든 반상기 한벌을 받고 동창생의 남편을 취직시켜줬는데,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내무부장관 세력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외교관 부인은 남편의 잦은 외식을 자랑삼아 불평하고, 은행중역의 부인은 자기 남편이 한달에 한번 정도의 식사만 집에서 하는 걸 자랑한다. 지도층 부인들의 허풍이 풍자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오병헌의 행각을 통해 당시 일부 정치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그는 “국회의 무슨 분과 위원에 모 정당 중앙집행위원이요, 게다가 무슨 단체, 무슨 단체의 고문 직함을 십여 종이나 가지고 있어서, 나는 새라도 떨어뜨릴 만한 세도가였다.”(12회) 그는 선거철이 다가오자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당시 부패정치인의 전형이다.

「그러시다면 고향에 학교는 왜 세우시렵니까?」

「그거야 선거운동이지! 누가 학교를 세우고 싶어 세우는 줄 아는가?」

「……」

장교수는 오직 입맛을 다실뿐이었다.

「아름든 국회의원은 애국자라야만 하나까, 내가 애국자라는 것과, 내가 아니고는 부패한 국가를 구할 사람이 없다는 것만 역설해 주게! 그리고 참, 우리 고향에 충내천(忠乃川)이라는 강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정부 당국과 협의해서 그강에다가 다리를 놓을 생각이네. 그다리도 내가 아니고서는 실현을 보기 어려우리라는 것도 한마디 써넣어주게!」

「그것은 실현성 있는 공약(公約)입니까?」

「하하하 자네는 참 착한 소리도 하네그러! 입후보자의 공약이란 표入수를 많이 얻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데, 실현성의 유무가 하상관이란 말인가?」

오병헌 국회의원은 천연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131회)

오병헌은 고향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선거운동 때문이고, 다리를 건설하는 등의 각종 선거공약들도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공약의 실현성 여부는 안중에도 없다. 당시 정치인의 한 전형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낙선할 뿐만 아니라 빗쟁이에 쫓기다가 경찰에 잡혀간다.

「자유부인」에서는 대학생도 부패된 사회상의 예외적 존재가 아니다. 대학생의 모습은 신춘호, 원효삼, 오명자 등에서 읽을 수 있다. 신춘호는 영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면서 학교에는 별로 나가지 아니하고, 밤낮 춤만 추러 다닌다고 소문난 청년이다. 오명자도 춤이 아주 수준급이어서 댄스파티에 파트너와 함께 참석하는 여대생이다. 원효삼은 공부를 게을리하고는 뇌물까지 바치며 성적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학생이다.

이처럼 「자유부인」이 시의성을 잘 포착한 점은 이 작품이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모은 주요한 요인이 된 것이다. 특히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소수의 상류층에 속하지 않는 일반대중들은 말로만 듣던 상류층의 타락

상과 부패상에 대해 소설을 통해 실감나게 접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 2. 화제걸치기 기법

김동인<sup>14)</sup>은 신문소설의 특징을 말하면서 한 작품을 매일 연재하되 독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매일 실릴 내용을 기다리게끔 하려면 매회 매회 재미있는 내용을 실어야 하는데, 이 일회분의 재미는 다음에 올 일회분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복선 구실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화제걸치기 기법과 상통하는 것이다. 정비석도 이런 점에 주목했다. 그는 『소설작법』을 통해 화제걸치기 기법을 신문소설 창작에 활용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행 신문소설은 1회분이 2백자 원고 용지로 대략 여덟 매 내지 아홉 매 정도인데, 그렇듯 짧은 매수 내에서 그래도 독자가 그것을 읽고 나서 무엇을 읽은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담겨있어야 한다. 사건 전개라든가, 장면 전환이라든가, 혹은 심리 변화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지면은 없지만, 어쨌든 1회분으로써도 실망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긴장미(緊張美)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문 소설의 독자들처럼 현실적인 독자는 없다. 한 회분을 읽어 보아서 자기대로 흥미가 없으면 벌써 그 다음 날부터는 읽기를 포기해 버린다. 그러므로 신문에 연재하는 소설에서는 적어도 그날 그날 독자를 끌고 나갈 만큼 매력적인 그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 매력은 동시에 명일의 매력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sup>15)</sup>

정비석은 “그날 그날 독자를 끌고 나갈 만큼 매력적인 그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 매력은 명일의 매력을 약속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러한 화제걸치기 기법을 「자유부인」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14) 김동인, 「신문소설 어떻게 써야 하나」, 『조선일보』 1933년 5월 14일자.

15) 정비석, 「신문소설론」, 앞의 책, 181쪽.

있다. 「자유부인」이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끈 데에는 작가가 이런 기법을 잘 활용했음에 힘입은 바 적지 않은 것이다.

「자, 저 방으로 가십시오.」

저 방이란—「떠블·벳드」가 놓여 있는 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태석은 여자의 몸을 옆으로 살며시 껴안더니, 한결음 한결음 조심스럽게 걸어나갔다.

오여사는 어느 아득히 먼 곳에서 「왜·딩·마·취」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을 느끼며, 꿈속에서 걸음을 옮겼다.(192회 끝)

서울 시내 가회동의 한 여관에서 한태석과 오선영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이다. 통행금지가 된 시간에 남녀가 단둘이 여관에 들어있다. 침대로 가고 있는 순간이다. 독자들의 호기심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 독자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가 재미있을 만한 대목에서 이야기를 끊고 그 화제를 다음호에 걸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곧 연재의 고비마다 마지막 장면에 서스펜스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스펜스는 이야기 전개의 전체 구조와 따로 놀지 않고 그 속으로 무리없이 녹아들어야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바, 「자유부인」에서는 성공적으로 서스펜스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군데 예를 더 들어본다.

① 오여사가 떡보자기를 들고 친정 대문을 나선 것은 여덟시가 넘어서였다.

그리하여 달빛 희미한 골목을 빠져 나오다가 별안간,

「아!」

하고 깜짝 놀라며 발을 멈추었다.(17회 끝)

오선영여사는 발을 멈추며 눈을 커다랗게 떠서 앞을 내다보았다. 킁킁한

국문확보 제14집

골목길 한복판에 두옥신 같이 시커먼 것이 웅크리고 서있었기때문이었다. 그것이 사람임에는 틀림 없어 보였다. 자세히 보니, 한 쌍의 청춘남녀가 대담하게도 골목 한복판에서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오여사는 불각시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기자신이 주인공인듯한 착각에, 심장이 터질것만 같이 뛰놀았다.(18회 처음)

㉞ 「제가 차 한잔 사 드릴게요!」

박은미는 문득 발을 멈추며 말하였다.

「차를 사주겠다구?...은미가 차를 사준다면, 고맙게 먹지!」

장태연 교수는 내심 매우 유쾌하게 생각하며 찻집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문득 뒤로 달려오던 「짚」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장군! 태연군!」

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48회 끝)

장태연교수는 찻집으로 들어가다 말고, 황급히 뒤를 돌아다보았다. 「짚」차의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정면으로 비치는 바람에 장교수와 박은미의 모습이 면구스럽도록 분명하게 들어나 보였다.

장교수는 당황히 광선을 피하면서

「누구시오?」

하고 물었다.(...)

「나야 나! 오병헌이야!」(49회 처음)

㉟ 오선영여사가 한태석과 함께 다사로운 봄별을 받으며 「페이브먼트」를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노라니까, 문득 등뒤에서 누구인지,

「어딜 가세요?」

하고 날카로운 음성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자의 목소리였다.(105회 끝)

오선영여사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다가 벼란간 등골이 오싹하였다. 가로수 그늘에 딱 버티고서서 두사람을 노려보고 있는 여인 그는 천만뜻밖에도 이 월선여사였기 때문이었다.(106회 처음)

㉠에서는 오선영이 친정집을 나서면서 무엇을 보고 놀랐는데(17회), 그것은 골목한복판에서 두 청춘남녀가 키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음(18회)이 확인된다. 밤중에 골목에서 깜짝 놀랐으니 독자는 왜 놀랐는지 궁금하지만,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끊고 있다. ㉡에서는 장태연이 박은미와 함께 찻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48회), 다음호(49회)에 그가 오병헌임을 드러낸다. 교수가 젊은 여성과 함께 다니다가 들킨 상황인데, 누구에게 발각된 것인지 드러내지 않다가 다음회에 가야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힌 것이다. ㉢에서는 오선영과 한태석이 다정하게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불러(105회),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한태석의 부인 이월선이었음(106회)을 밝혀준다. 서로 욕심을 품고 점심식사를 하려가던 중 누가 뒤에서 불렀으니 매우 긴장된 순간인데, 작가는 거기서 이야기를 절단하는 기교를 보이고 있다.

독자들은 이러한 화제걸치기 기법에 따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날마다 다음날의 신문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결국 화제걸치기 기법이 신문사 구독자 확보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뜻한다. 이는 「자유부인」이 상업성과 관련된 대중소설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화제걸치기 기법은 독자의 흥미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의지하다보면 작품의 구조에 녹아들지 않아 소설 전체의 균형이 깨지는 등 작품성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부인」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3. 독자의 참여

신문소설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독자의 반응에 영향을 받는 비교적 유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월간지나 계간지에 게재되는 장편도 연재물이긴 하지만 신문소설에 비해서는 독자의 반응에 대한 영향력이 적으니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다. 우리는 일간지에 연재된 「자유부인」에서도 독자의 반응에 따라 소설의 흐름이 정해진 흔적을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부인」의 인기를 더욱 부채질한 것은 이 작품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작품의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논쟁의 발단은 서울대 법대 황산덕 교수가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이란 제목의 글<sup>16)</sup>을 통해 「자유부인」이 대학교수를 모욕하는 소설이라고 비판한 데 있었다. 황산덕은 “수억인의 원성을 개의치 않고서 자기 고집을 부리던 스탈린의 흉내를 내면서 수백명의 대학교수와 수천명의 그 가족과 수만명의 대학생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전체의 非難聲 쯤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배짱”이냐고 따졌다. 이런 황교수의 공개비난문이 나오자 정비석은 황교수의 글이 문학자들을 모욕한 것이라는 내용의 반박문 「脫線的 是非를 駁함」<sup>17)</sup>을 쓴다. 그는 작품을 읽어보지도 않고 비난한 점, 유명해지기 위해 소설을 쓴다고 모욕적 연사를 한 점, 감정적 흥분으로 일관한 점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황교수는 첫번보다 더욱 격렬한 내용의 반박문 「다시 「自由夫人」作家에게」<sup>18)</sup>를 발표했다. 그는 「자유부인」이야말로 문학작품일 수 없다면서 “야비한 인기욕에만 사로잡히어 에로작문을 회롱하는 문화의 적이요 문학의 파괴자요 중공군 50만명에 해당하는 적”이라고 정비석을 몰아부쳤다. 그러자 홍순엽 변호사가 작가를 변호하는 내용의 「「自由夫人」作家를 辯護함」<sup>19)</sup>을 『서울신문』에 기고했다. 그 글의 요지는 황교수가 정비석을 비난하는 태도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대학신문』에는 문학작품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따지는 백철의 글이 실

16) 『대학신문』 1954년 3월 1일자.

17) 『서울신문』 1954년 3월 11일자.

18) 『서울신문』 1954년 3월 14일자.

19) 『서울신문』 1954년 3월 21일자.



렸다.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자유부인」 논의와 관련해서」<sup>20)</sup>라는 이 글은 양쪽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황 교수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를 문제삼느냐고 따진 부분에 대해 “대학교수가정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말을 했는가 하면, 작품 「자유부인」에 대해서는 인물과 환경의 필연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이 우리 문학사에서 유래가 드문 격렬한 논쟁으로 인해 「자유부인」은 더욱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작품을 발표한 지 30여년이 지난 1985년에 쓴 글에서 작가 정비석은 당시 이 소설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자유부인」을 연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어느 대학 교수로부터, “자유부인」은 중공군 40만 명보다 더 무서운 해독을 끼치는 소설”이라고 맹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정치 경제계의 인사들로부터 “자유부인」은, 북괴의 사주(使賂)로 남한의 부패상을 살살이 파헤치는 이적 소설(利敵小說)”이라고 규탄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연유로 하여, 나는 집필 중에 시경(市警), 치안국, 특무부대 등등, 온갖 수사 기관의 취조를 받아야만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웃지 못할 희극이었다. 「자유부인」을 연재한 신문이 국가의 기관지인 「서울신문」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소설을 끝까지 연재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가 하면, 일반 독자나 대중들은 ‘어느 누가 무슨 박해를 가하든 간에 조금도 굴하지 말고 용감하게 써 나가라’는 격려의 편지를 수없이 보내 주었다. 여기에 힘입은 나는 날마다 빗발치듯 쏟아져 나오는 협박장과 위협 속에서, 나 자신을 굳게 지켜나가면서 집필을 계속했던 것이다.

독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자유부인」은 작중인물들과 관련된 사회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혹평을 받았지만,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호응이 컸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부류가 각기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것은

20) 「대학신문」 1954년 3월 29일자.

지도층의 경우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 따른 비난이었던 반면, 일반대중의 경우 대리만족이나 카타르시스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일반독자들이 '정서적 연대감(affective alliance)'을 형성했다는 말이다. 특히 오선영은 일반대중 가운데도 여성 독자들에게 정서적 연대감을 적극 유도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독자들이 「자유부인」에서 벌어지는 세계에 대해 자신들의 일상과 다른 듯하면서도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독자 공감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학은 일상 삶에서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금지되어온 영역을 통제된 방식으로나마 조심스럽게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상의 세계를 통해 제공한다. 예를 들어 주로 악역을 맡은 인물들의 대리행위를 통해 독자들은 문화적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최대한의 호기심을 충족시킨다.”<sup>21)</sup> 작가는 이러한 독자의 경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이 작품의 전개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소설이 진행될수록 장태연이 점점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가는 것은 황산덕 교수의 공개비난문 같은 문제제기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선영의 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의 남편인 장태연의 일탈은 그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점도 그 이유가 논쟁의 영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선영은 옆집 대학생과 춤을 추고 포옹하고 키스하는가 하면 한태석과 여관에까지 드나드는 애정행각을 벌이지만, 장태연은 박은미와 영화를 보고 식사하고 함께 거닐거나 선물을 받고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정도에 그친다.

특히 작품 마지막 부분의 국회공청회장에서의 장태연의 당당한 모습은 황산덕 교수 등과의 논쟁의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다음의 예에서 보듯 작가가 처음 부분에 장교수를 묘사한 부분과 공청회장에서의 모습을 묘사한 후반부의 장면을 비교해 보면, 그

21) 카웰티(J.G. Cawelti), 「도식성과 현실도피의 문화」,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동연, 1994), 107쪽.

런 점이 확인된다.

장교수는 자못 유쾌한 기분이었다. 장태연교수도 목석이 아닌 바에야 젊은 미인과 단들이 명랑하게 이야기하기가 유쾌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유쾌하게 웃으면서 다시금 종아리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억제하려고 해도 시선이 자꾸만 그리로 쏠렸다. 장교수도 역시 남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모양이다.

은미가 가 버리자, 장교수는 무슨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한동안 멍하니 앉아서 그가 남기고 간 아름다운 환상을 더듬었다. 어쩐지 마음이 혼 혼해 오는 것만 같았다.(23회)

방청석에서는 또다시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장태연교수의 이야기는 끊인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어디까지나 이로(理路)가 정연하고도 함축성 있는 이론이었다. 진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권력조차 초개시(草芥視)하는 장교수의 준엄한 태도는 순교자의 그것처럼 비장해 보이기도 하였다.

방청객들도 모두 탄복하는 모양이지만, 누구보다도 경탄한 사람은 오선영 여사였다.(214회)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지도층 인물들의 부패상을 파헤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일부 약화되긴 했어도 크게 훼손되지 않고 끝까지 견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작가의 말마따나 일반 독자와 대중들의 많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오선영의 탈선이 최후의 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점도 윤리적 측면에서 독자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이미 세간에 화제가 되어 사회적으로 상당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작가가 성(性)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자제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마담!」

「글쎄, 왜 자꾸만 이러느냐 말야?」

「마담……아이·러브·유!」

신춘호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쏘아보며, 문득 어릿광대같이 중얼거린다.(…)

(에라! 한번만 소원을 풀어주기로 할까?)

위험천만한 사상이건만, 오여사가 그런 생각조차 먹어보는 순간, 돌연 방 문밖에서

「엄마—이집에 우리 엄마 왔어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117회)

오선영이 신춘호의 방에서 춤을 추고난 직후의 한 장면이다. 신춘호의 고백과 유혹에 이끌려 “에라! 한번만 소원을 풀어주기로 할까?” 하고 생각을 먹으며 막 넘어가려 할 때다. 소원을 풀어준다는 것을 빙자하여 사실 오선영은 신춘호와 육체적 관계를 맺으려고 걱정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선영의 아이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선영의 탈선은 거기서 그치게 된다. 이는 다분히 독자를 의식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고려라 볼 수 있다. 설령 이 대목에서는 이야기를 더 끌고 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처리했다 할지라도 후반부에 전개된 다음의 대목에서는 작가가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점이 확실히 드러난다.

침대언저리가 다리에 부딪치는 바람에 오선영여사는 제풀에 눈을 반짝 떠 보다가,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몸과 마음의 준비는 벌써부터 다 되어 있지만, 휘황한 광선이 양심의 눈에 부시었던 것이다.

「불, 끄세요!」

오선영여사는 무심중에 중얼거렸다.

「불을 꺼요?」

한태석이가 약간 불만한 어조로 물었다.

「꺼 주세요」

「그럼 끄죠」

팔을 들어, 전등 스위치를 막 끄려고 했을 그순간이었다. 벼란간 벼락치는

소리로 문이 열리며, 누구인가 비호같이 방안으로 뛰어들더니, 땀바람에 오선영여사의 머리채를 휘어쥐고 우박같이 주먹을 내리족치면서(193회)

위에 인용된 장면은 오선영의 탈선이 최고조로 진행된 상태다. 통행 금지된 시간에 여관에서 남녀다. 더구나 그들은 어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던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사건의 진행은 이 대목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거기에서 한태석의 부인인 이월선을 등장시킴으로써 그 이상의 관계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작가는 오선영의 육체만은 끝까지 지켜주었던 것이다. 정비석의 다른 소설에 비해 오히려 이 작품에서는 남녀간의 육체관계가 그다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 역시 이 소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은 그런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본다. 1950년대 사회 분위기에서는 다수의 독자가 관심을 가지고 소설을 읽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작가는 가정부인인 오선영의 탈선을 어느정도 선에서 막아주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정비석의 소설창작론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윤리관(倫理觀)에 있어서도 신문소설은 순문에 장편과 다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문학이란 항상 낡은 것을 지양하고 새 것을 탐구하는 정신적 소행인만큼 새로운 윤리관을 얼마든지 강력히 주장해도 상관없지만, 신문소설은 직접 간접으로 독자와의 타협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리관에 있어서도 다분히 기성(既成) 윤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sup>22)</sup>

신문소설은 순문에 장편과는 달리 독자와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성 윤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의 이론이 「자유부인」 창작에도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

22) 정비석, 「신문소설론」, 앞의 책, 183쪽.

이와같이 「자유부인」은 독자의 엄청난 관심 속에 그들의 영향을 부지불식간에 받으면서 씌어진 작품이다. 독자의 참여와 개입으로, 독자와 타협하며 씌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전작장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다.

#### IV. 「자유부인」의 통속성과 문학성

「자유부인」은 대중소설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범주에서 작품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흔히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나눠 얘기할 때, 고급문화의 성격은 진지한 것으로, 대중문화의 성격은 통속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라 통속적인 것은 진지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처럼 통속적인 것을 진지한 것의 그림자로만 간주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견해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통속적인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인간적인 본성의 한 측면임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속적이라 하여 무조건 내팽개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곧 대중문학의 통속성에 대한 미학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sup>23)</sup>

박성봉에 따르면 통속성을 대표하고 있는 주요한 요소(통속성의 하부 범주)로 ① 웃음의 해학성(the comic), ② 성의 관능성(the erotic), ③ 폭력의 선정성(the sensational), ④ 몽상의 환상성(the fantastic), ⑤ 눈물의 감상성(the sentimental)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sup>24)</sup> 그리고 그는 이같은 요

23) 대중예술의 통속성에 대한 미학적 접근에 대해서는 박성봉이 「대중예술의 미학」(동연, 1995)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24) ① 웃음의 해학성: 난센스, 폭소, 얽치락뒤치락, 파이 집어던지기 또는 열이 빠져 있는 사람들의 세계.

② 성의 관능성: 정열, 키스, 강간, 스트립쇼, 성행위, 열려진 속옷 또는 검정 실크양말 등의 세계.

소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 자체가 미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문화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대중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sup>25)</sup> 그러면 「자유부인」에서는 위와 같은 통속성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통속성의 하위 범주들 가운데 웃음의 해학성, 폭력의 선정성, 몽상의 환상성 등은 「자유부인」에서는 두드러진 요소가 아니나, 성의 관능성과 눈물의 감상성이 독자를 끌어당기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성의 관능성은 이 작품의 도처에 드러난다. 이는 「자유부인」이 통속소설로 취급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며, 「졸곡제(卒哭祭)」(1936)·「성황당(城隍堂)」(1937) 이래 정비석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특징이기도 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① 신춘호는 왼손으로 오여사의 손을 붙잡으며 다른 팔로 오여사의 허리를 둘러 안았다. 오선영여사는 허리를 껴안기우자, 기분이 이상아듯하게 흥분되었다. 남편 아닌 이성의 품에 안겨보기가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

오선영 여사는 신춘호의 품에 안기자, 자신의 비애와 고독을 새삼스러이 깨달았다. 그러기에 이성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더한층 신비로웠다.(31회)

② 신춘호의 시선은— 호소하는 듯, 애원하는 듯, 감격에 사무치는 정열의

③ 폭력의 선정성: 피, 공포, 테러, 복수, 폭력, 제앙 또는 죽은 자들이 떠다니는 세계.

④ 몽상의 환상성: 매혹, 경이, 몽상, 마법 또는 항상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세계.

⑤ 눈물의 감상성: 달콤한 고독, 호느낌, 통곡, 향수, 호물거리는 눈시울 또는 눈물에 젖은 손수건이 찹추는 세계. (위의 책, 323~324쪽.)

25) 카웰티는 「도식성과 현실도피의 문화」에서 도식성과 오락성을 대중문학의 특성으로 말하고 있는 바, 이런 통속성에 대한 논의는 곧 오락성의 측면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성과 대중의 세속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엄밀히 따져 별개로 논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통속성이 측면에 오락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시선이었다. 무언의 시선이전만, 무척 많은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는 듯이 신비로운 시선이기도 하였다.

오선영 여사도 무심중에 신춘호의 시선을 마주보았다. 다섯치의 거리를 두고 무언의 시선이 오고가는 동안에 오여사의 시선에도 신비의 빛이 점점 넘쳐갔다.

(……)

오여사는 호흡이 자꾸만 급박해와서 대답 대신 눈으로 반문하였다. 그러자 그 순간, 허리에 감겨있던 사나이의 팔이 서서히 몸을 조이며 얼굴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다음 순간, 입술을 고요히 「툃취」하였다.(32회)

㉔ 「마담! 마담의 얼굴은 「마돈나」의 얼굴같이 순결하고도 성스럽구려!」  
한태석의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꿈결같이 들려왔다. 무아경(無我境)의 일순간이었다.

다음 순간, 한태석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에 겹쳐움을 느끼자, 오선영여사는 저도 모르게 사나이의 어깨를 살며시 붙잡으며 눈을 사르르 감았다. 눈만 감으면 그만이었다. 입술과 입술이 마주 닿았다.

황홀한 감각이었다. 입술에서 오는 황홀한 감각이 전신으로 전파처럼 퍼져나갔다. 아니, 전신이 송두리째 입술로 변해버린 듯, 오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은 오직 입술의 감각뿐이었다.(192회)

㉕ 바로 그때였다. 영화의 화면위에서 한쌍의 남녀가 열렬한 포옹을 하였다. 그와 동시에 여태까지 죽은 듯이 고요히 앉아 있던 박은미가 문득 가벼운 한숨을 쉬며 몸을 약간 움직거렸다. 몸을 움직거리면서 손을 팔걸이 위에 슬쩍 걸쳐놓았다. 그 바람에 은미의 새끼손가락 끝이 장교수의 손등에 약간 접촉되었다. 살과 살이 접촉된 부분은 극히 미미한 면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은미의 손가락이 자기 피부에 접촉되었다고 깨닫는 순간, 장태연교수는 전신이 찌르르해오도록 강렬한 감전(感電)을 느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영화의 화면조차 눈에 보이지 않았다.(47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정비석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성적인 묘사에 아주 능수능란하다. ㉑과 ㉒은 오선영이 처음으로 신춘호의 방에 댄스



를 배우러 갔을 때의 장면인데, 그 상황에서의 관능적인 표현이 2회분  
에 걸쳐 연재되고 있다. ㉞은 오선영이 한태석과 함께 여관에 들어갔을  
때의 장면으로, 춤을 추면서 침대로 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이다. 작가가  
감각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㉟은 장태연이 박은미와 영화관에 앉았을 때의 상황으로, 새끼손가  
락과 손등의 미세한 접촉을 영화의 뜨거운 화면과 연관시키면서 아주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장면전환이 매우 빠른 것이 신문소  
설의 특성인데도 작가는 이러한 성적인 묘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서술시  
간을 매우 지연시키고 있다.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오락적인 장치다.  
“대중예술의 관능성은 삶의 확장으로서의 도피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sup>26)</sup>는 바, 독자들은 「자유부인」의 성적 관능성으로 인해 전쟁 직후의  
암울한 상황에서 삶의 도피적 체험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  
성봉의 견해에 수긍한다면, 이러한 점 자체를 곧 통속성의 미학으로 상  
정할 수 있다.

눈물의 감상성은 이 작품의 후반부에 치우쳐 드러난다. 집에서 쫓겨  
난 후 오선영이 뉘우치는 부분이 그것이다.

㉠ 오선영여사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어쩌다 잠을 들게  
되면 으레 꿈을 꾸는데, 그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남편이나 아이들을 만나  
는 꿈이거니와 하였다. 남편과 아이들을 만나 한참 즐겁게 지내다가 문득 깨어  
보면 꿈이었던 것이다. 그런 때면 오여사는 소리없이 흐느껴 울었다.(205회)

㉡ 오여사는 그들의 뒤를 꾸준히 따라가면서 자꾸만 눈물을 삼켰다.

(저기 끼일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스러울까!)

아이들의 학교 마중을 아버지가 오게 되었다는 것도 슬픈 일거니와, 반  
드시 그들 속에 끼여 있어야 할 자기가 아내와 어머니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은 뼈가 저리도록 슬픈 일이었다.

설움을 삼키며 정신없이 쫓아가는 사이에 어느덧 집 앞에 이르렀다. 남편

26) 박성봉, 앞의 책, 339쪽.

과 아이들은 서슴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버린다. 그러나 오여사는 거기까지 따라들어갈 신세는 못 되기에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다. 걸음걸음에 가슴이 쓰라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을 걸을 수가 없었다.(205회)

오선영이 ㉠ 꿈마다 남편과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 ㉡ 아이들이 보고 싶어 아이들 학교 앞에 갔으나 떳떳하게 나서서 만나지 못하고 뒤에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장면은 독자의 감상적인 측면에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다. 214회 연재분에서 오선영이 국회 공청회장의 방청석에 앉아 장태연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감상성이 표출된 장면이다. 이런 것들은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오선영의 행위에 못마땅해 하던 독자들에게도 일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장면들이다. 작가가 모성애와 귀소 본능 등을 자극해 독자들의 감상성을 돋우고 있는 것이다.

현편에서 보면, 이러한 독자들의 감상성은 결국은 독자들 자신의 감정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독자들의 경우에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즐기려 했던 오선영을 내심 부러워했을 가능성이 있다. “작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결국 가정의 혼란과 사회의 타락성을 부추길 뿐이라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봉쇄하려 했으나, 여성독자들은 거꾸로 이 소설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렷이 확인”<sup>27)</sup>함으로써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대리인격인 오선영이 어쩔 수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에 눈물을 공유했을 법하다. “감상성의 체험은 그 대상과 사건이 아주 오래 전에 그리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27) 김창식, 「한국신문소설의 대중성과 그 즐거움에 대한 연구」, 『우암어문론집』 제7집(부산외국어대 국어국문학과, 1997), 65쪽. 이처럼 「자유부인」에서는 작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편에서 여성들의 자기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창식의 같은 글 71~75쪽에서 적절히 논의되고 있다.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sup>28)</sup>이기 때문이다.

카웰티는 「도식성과 현실도피의 문화」라는 글을 통해 대중문학의 속성들이 예술적 가능성과 양립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대중문학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길이 된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도식성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전개에서는 개성과 스타일에 근거를 둔 변화의 묘미를 보여주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중소설의 예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① 대중문학의 도식적인 인물묘사에 개인적인 채취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 ② 도식성의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이야기 전개의 지평을 어떻게 확대시키고 있는가 등 두 가지로 제시했다.

이런 관점은 특히 대중소설의 도식성에 주목한 것이다. 카웰티는 대중문학의 도식성을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은밀히 잠들고 있는 저마다의 꿈이 공동체적 의식과 문화적 갈등 사이에서 놀이적 표현을 획득하면서 구체화된 삶의 흔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도식성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느냐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도식성이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일련의 패턴을 말한다. 그것이 대중소설에서 추구되는 것은 과거부터 길들여진 체험이 독자의 내부에 형성해 놓은 기대의 지평으로 인해 독자가 새로 접하는 작품에서도 쉽고 편안한 체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sup>29)</sup> 「자유부인」에도 도처에 도식성이 나타나는데, 지나친 윤리적 결말, 우연적 요소, 작위적 인물관계 등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고소설처럼 지나치게 윤리적인 결말로 치닫고 있다. 아이들과 남편을 내팽개치며 갈 데까지 갈 것 같던 오선영이 결국에는 잘못을 뉘우쳐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지극히 윤리적인 결말로 도식적인

28) 박성봉, 350쪽.

29) 카웰티, 앞의 글, 83~84쪽.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오선영보다 더 적극적으로 애정행각을 벌인 최윤주가 결국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닫힌 결말이야말로 통속소설의 특성인 것이다.

우연성에 기대어 사건을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통속적 성격에 해당한다. 의외의 조력자가 나타나 위기의 순간을 해결해주는 것은 고소설에서 두루 산견되는 화소(話素)인 것이다. 오선영과 신춘호가 육체관계를 맺으려는 시점에서 때맞춰 아이들이 등장한 것이나, 오선영이 한태석과 침대로 가는 순간 이월선이 나타난 것은 우연적 요소가 강하다. 주체의 의지와는 거의 무관한 우연인 것이다.

인물간의 관계에서 상당히 작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점도 도식적인 측면이다. 오선영을 중심으로 보면, 그녀에게 춤을 배워주고 같이 즐긴 신춘호는 조카 오명옥의 애인이며, 선영에게 접근하는 백광진은 친구 최윤주와 내연의 관계다. 애정관계를 선영을 중심으로 작위적으로 엮어 놓았다. 즉, 오선영의 주변인물들을 너무 가까이 배치했다는 것이다. 장태연인 호감을 갖는 여인 박은미가 바로 그의 제자인 원효삼의 애인으로 설정된 점도 그런 면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자유부인」의 도식성이 긍정적으로 극복되고 있는가. 어떤 점에서 문학성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우선 대개 통속소설의 주인공은 영웅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마련이지만, 「자유부인」의 주인공들은 통속적 요소인 영웅과는 거리가 멀고 개성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장태연에게서는 작품 후반부에서 영웅적 면모가 엿보이기는 한다. 오선영 주변 인물의 설정도 앞서 말한 것처럼 다소 작위적인 면이 없지는 않으나, 오선영만 놓고 보았을 때는 상당히 생동감이 있으며 개성적인 면이 강하다.

오선영은 교수의 부인으로 아들이 둘 있는 35살의 가정주부다. 이 작품에서 오선영의 일련의 행위는 남편 장태연, 친구 최윤주와 각각 대비되면서 전개된다. 이런 점에 주목하면 「자유부인」의 의미가 좀더 분명히 드러나며, 그것은 이 소설이 통속성에만 머물지 않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태연과는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입장, 애정문제에 대한 생각 등이 대비된다. 평소에는 자기생활에 별 불만이 없이 살던 오선영은 화교회 참석을 계기로 가정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양품점에 나가면서 옆집 대학생 신춘호로부터 댄스를 배우고, 백광진, 한태석 등 남편 이외의 남자와 교분을 쌓는다. 한편 장 교수는 한글철자법 강습을 구실로 미군 부대의 타이피스트인 박은미를 만나면서 함께 영화를 보는 등 관계를 지속하며 야릇한 감정을 느낀다. 처음에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애정 행각을 벌일 것 같던 이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차별성을 드러낸다. 오선영은 애정문제에 적극적이지만 장태연은 소극적인 점, 오선영이 애정문제로 가정과 일을 소홀히 하지만 장태연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윤주와 오선영은 각기 남편 이외의 남자와 즐기는 면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만, 최윤주는 이혼한 여자여서 남자와의 관계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점이 차이가 있다. 최윤주는 백광진과 육체관계를 맺고 여행을 같이 떠나더니 결국은 임신하고 낙태를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른다. 그에 비해 오선영은 백광진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그에게는 애정관계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한태석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면서도 그 정도가 최윤주에 비해 미약하다. 최윤주는 파멸의 상황이지만, 오선영은 구원의 상황인 것이다.

오선영은 그 행동이나 성격면에서 장태연과 최윤주의 가운데편에 설정된 셈이다. 오선영의 행위와 상황, 갈등 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주도면밀한 관계 설정은 이 소설의 문학성을 끌어올린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전형적, 본질적 파악에서 일탈한 면이 비교적 적다는 점도 이 작품이 문학적 가치를 잃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자유부인」은 앞서 시의성의 측면에서 살핀 것처럼 비교적 현실의 단면을 잘 포착하고 있는 소설로 볼 수 있다. 50년대의 상황에서는 전쟁문학적인 면모

나 분단상황 등도 당시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문화의 유입 등에 따른 사회문화적 충격 역시 당시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런 점을 매우 적극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이 작품이 세대소설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자유부인」은 세대소설로서의 소설사적 위상을 인정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와 관련 정한숙은 「자유부인」을 ‘세대풍속소설’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廉想涉*의 「*두 破産*」을 비롯한 「*電話*」, 「*밥*」, 「*一代의 遺業*」, 「*굴레*」 등 일련의 *短篇小說*이나, *李泰俊*, *朴泰遠*, *蔡萬植* 등 많은 작가들<sup>30)</sup>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유부인」에서는 통속성의 측면들이 통속성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작가의 진지한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속성의 측면만 강조하여 작품에 드러난 문제의식을 도외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처사로 볼 수 있다.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은 공존하게 마련이며, 그 중에서 우리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이 작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대중문학의 문학적 가능성은 현실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현실도피의 가상적 체험을 제공하는 도식성의 역동적 가능성에 근거하고”<sup>31)</sup> 있는 것이다. 결국 「자유부인」은 도식성의 역동적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대는 언론상황의 변화에 따른 신문지면의 급격한 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신문에 게재되는 연재소설이 양적으로 증가하

30) 『현대한국소설론』 143쪽.

31) 카웰티, 앞의 글, 105쪽.

였는가 하면 그 독자들도 많았다.

둘째, 「자유부인」은 시의성 면에서 미국문화지향적인 세태, 부유층 부인들의 춤바람·계바람,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층의 부패상 등을 잘 포착하여 독자의 공감을 얻었다.

셋째, 「자유부인」은 화제걸치기 기법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배가시켰으나, 그것이 작품의 구조를 그다지 훼손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유부인」과 관련된 논쟁은 작품의 인기를 고조시켰으며, 그러한 독자들의 관심은 작가가 독자와 어느정도 타협하도록 함으로써 소설의 흐름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자유부인」은 관능성·감상성 등에서 통속성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통속성도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이므로 그것이 지닌 미학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여섯째, 「자유부인」은 지나친 윤리적 결말, 우연적 요소, 작위적 인물 관계 등에서 도식성을 띠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통속적인 요소인 영웅이 아니고 개성적인 체취가 부여된 점 등은 이 소설의 문학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며, 현실성을 잃지 않고 세태소설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점도 주목할 만한 요소다.

#### <참고문헌>

- 김동인. 「신문소설 어떻게 써야 하나」. 『조선일보』 1933년 5월 14일자.  
김영덕. 「신문소설과 윤리」. 『자유문학』 1957년 7월호.  
김창식. 「한국신문소설의 대중성과 그 즐거움에 대한 연구」. 『우암어문론집』 제7집. 부산외국어대 국어국문학과, 1997.  
대중문학연구회.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대학신문』 1954년 3월 1일자, 29일자.

- 『리쿠르트 Times』 1997년 4월 7일자.  
민병덕. 「한국근대신문소설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7.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서광운. 『신문소설사』. 해돋이, 1993.  
『서울신문』 1954년 1월 1일자~8월 9일자.  
임성래. 『조선후기 대중소설』. 태학사, 1995.  
정비석. 『소설작법』. 정음사, 1987.  
———. 『자유부인』. 고려원, 1996.  
정태용. 「신문소설의 새로운 영역」. 『사상계』 1960년 4월호.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2.  
———. 『현대한국소설론』. 고려대학교출판부, 1977.  
최정호 외 2인. 『매스미디어와 사회』. 나남, 1990.